

2012 이슈페이퍼 《 연구보고서 2012-18



2012 ISSUE PAPER

##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본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 변화

수행과제명 |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과제책임자 | 주재선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본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 변화

수행과제명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과제책임자 주재선 연구위원

Tel: 02-3156-7192

e-mail: jjs2000@kwdimail.re.kr

## 요약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단면조사로써,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을 동태적으로 보여줌. 본 연구는 2007년도 조사이후 여성과 가족, 경제활동 변화와 특징에 대해 종단적 분석을 실시함.

## 1 배경 및 문제점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일자리 경험을 비롯하여,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형성 과정과 사건(event)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종단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임. 종단면 자료는 횡단면 조사에서 알 수 없는 통계의 내재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여성 지위의 변화와 정책 효과를 더욱 치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줌. 2012년 연구는 2007년 1차년도 조사이후 2010년 까지 변화된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고 있음.

## 2 조사 및 분석결과

### ▣ 가구의 변화와 특징

여성가족패널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전체가구원수 분포를 살펴 보면 1차, 2차, 3차년도 모두 4인가구 > 3인가구 > 2인가구의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1차 대비 2차, 3차에 걸쳐 가구원수 4인 이상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표 1-1** 가구의 전체가구원수 분포

(단위: %)

전체가구원수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1인	5.1	5.7	4.7
2인	17.6	17.5	16.3
3인	24.3	22.4	21.7
4인	40.2	40.8	42.7
5인	10.3	10.7	11.3
6인 이상	2.5	3.0	3.3
계	100.0	100.0	100.0

3차년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17.4%의 가구주가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구주 성별로 구분하여 현재 일자리가 없는 가구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는 13.0%, 여성가구주는 41.0%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가 큼. 현재 일자리가 없는 여성가구주의 비중은 1차년도에는 47.3%, 2차년도 42.4%, 3차년도 41.0%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1-2** 가구주 성별 현재 일자리 유무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일자리 있음	87.7	52.7	82.5	83.9	57.6	79.8	87.0	59.0	82.6
일자리 없음	12.3	47.3	17.5	16.1	42.4	20.2	13.0	41.0	1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현재 일자리는 자영업이나 농림어업축산업 포함,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조사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특정장소에서 한 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3차년도 주택명의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구주(82.5%) > 배우자(14.3%) > 자녀(1.4%) 순으로 명의자가 많으며, 1차년도 대비 3차년도의 부부공동명의가구는 2.5%에서 0.2%로 크게 감소함.

**표 1-3** 주택명의자

(단위: %)

주택명의자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가구주	79.8	81.7	82.5
배우자	12.9	13.1	14.3
자녀	0.6	0.7	1.4
어머니	0.7	0.8	0.8
아버지	0.4	0.6	0.5
부부공동명의	2.5	0.0	0.2
배우자의 어머니	0.2	0.2	0.2
형제자매	0.1	0.0	0.1
기타 친인척	2.5	0.0	0.0
자녀의 자녀	-	-	0.0
가구주+자녀 공동명의	0.1	-	-

주: 주택명의자는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 계약자를 주택명의자로 포함

3차년도 가구소득 원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만 보유(68.7%)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이전소득 보유(6.4%)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금융소득 보유(5.3%)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무런 소득 원천이 없다는 가구는 1.4% 정도 포착되고 있음.

**표 1-4** 가구소득 원천 보유현황

(단위: %)

가구소득 원천 보유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73.2	53.4	68.7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전소득	4.7	5.1	6.4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융소득	5.6	4.2	5.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수령액	3.0	4.0	3.8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소득	2.0	1.8	2.6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수령액+이전소득	1.2	2.5	1.7
이전소득	1.4	1.6	1.5
아무것도 없음	2.8	0.8	1.4
보험수령액	0.8	0.6	1.2

3차년도에 생활비로 지출한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식비(월평균 43만원), 교육비(월평균 43만원; 공교육비 월평균 17만원, 사교육비 월평균 26만원), 기타소비지출(월평균 34만원), 교통통신비(월평균 33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차년도 대비 3차년도에 생활비가 크게 증가한 항목은 교양오락비(57.5% 인상), 기타소비지출(25.3% 인상), 가구집기 가사용품비(23.3% 인상), 교통통신비(18.1% 인상)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가구의 소비형태 중 저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차년도에는 59.8%의 가구가 저축을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월평균 79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5 저축 현황**

(단위: %, 만원)

저축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저축이 있는 가구	54.3	54.9	59.8
월평균 저축액	68.0	73.2	79.7

3차년도 가구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56.4%, ‘조금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26.4%로 나타나고 있음.

**표 1-6 현재 경제상태**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매우 여유가 있다	0.6	0.3	0.5
여유가 있는 편이다	11.6	8.2	9.9
보통이다	50.4	51.3	56.4
조금 어려운 편이다	27.5	30.4	26.4
매우 어렵다	9.9	9.7	6.9
계	100.0	100.0	100.0

## ▣ 여성 개인 삶의 변화와 특징

### ● 가족생활

3차년도에 조사된 기혼 여성이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2차년도에 비해 0.07점 높아진 4.99점이었고, 1차년도에 비해 0.20점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결혼생활의 행복감 변화**

(단위: 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변동		
				1차→2차	2차→3차	1차→3차
평균	5.19	4.92	4.99	-0.27	+0.07	-0.20

주: 매우 불행하다가 1점, 매우 행복하다가 7점 기준임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행복감이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88.1%→91.4%→90.4%)를 제외하고,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76.8%→78.1%→75.7%),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69.3%→71.2%→69.8%),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80.7%→81.5%→78.7%) 중 ‘정말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것은 ‘자녀교육 문제’(47.8%→43.2%→45.4%), ‘투자 및 재산관리 문제’(55.7%→58.9%→58.5%), ‘생활비관리’(55.7%→58.9%→58.5%)로 나타났고, 본인이 주로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취업 여부’(38.5%→45.7%→45.3%), ‘본인의 직장 이동’(31.8%→39.0%→39.0%), ‘가족 내 여가활동’(69.2%→72.8%→69.4%)으로 나타남.

남편의 가사도움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1차년도의 경우 33.3%였던 것에 반해 2차년도에는 36.0%, 3차년도에는 34.0%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1-8**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변화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매우 만족한다	7.2	6.8	3.1
대체로 만족한다	33.3	36.0	34.0
보통이다	31.6	36.9	37.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9.2	15.3	18.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7	5.0	6.8
계	100.0	100.0	100.0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과 여성 응답자 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부모’(30.9%→29.2%→31.1%)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친정

부모'(25.2%→19.8%→20.4%), '자녀'(20.6%→29.9%→26.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9**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과 본인과의 관계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시부모	30.9	29.2	31.1
친정부모	25.2	19.8	20.4
시댁식구	2.1	2.4	1.5
친정식구	5.5	2.8	2.3
자녀	20.6	29.9	26.7
며느리	7.2	5.9	9.3
이웃	1.8	0.3	0.7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포함)	6.4	9.5	7.1
복지관에서 보내주는 도우미	-	0.1	-
기타	0.2	-	0.8
계	100.0	100.0	100.0

## ● 이혼

한편 이혼 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받은 경우(13.2%→16.3%→20.8%)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받지 않은 경우(86.8%→83.7%→79.2%)가 월등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0** 이혼 시 남편으로 부터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받았다	13.2	16.3	20.8
받지 않았다	86.8	83.7	79.2
계	100.0	100.0	100.0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차년도에는 89.0%로 나타났고, 2차년도에는 93.8%로 나타난 반면, 3차년도에는 46.4%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중 1차년도와 2차년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성년 자녀수는 2명(각각 55.1%, 71.6%)인 것에 반해 3차년도는 1명(63.4%)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음.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71.7%→78.2%→81.6%)가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사회적 편견’(3.0%→4.0%→4.7%), ‘결혼 생활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는 것’(10.3%→1.3%→0.9%) 등 이혼 후 힘든 점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11 이혼 후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경제적 문제	71.7	78.2	81.6
자녀교육 문제	7.0	5.3	2.8
사회적 편견	3.0	4.0	4.7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	5.0	0.9	1.0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는 것	10.3	1.3	0.9
외로움	0.1	4.7	5.4
없음	2.8	5.6	3.6
계	100.0	100.0	100.0

### ● 출산경험

지난 조사년도 이후 출산경험을 보면, 2차년도(2008년)의 경우 1차년도(2007년) 조사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4.3%로 나타났고 3차년도(2010년)의 경우 2차년도(2008년) 조사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4.3%로 동일했음. 하지만 2차년도의 조사와 1차년도 조사는 1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고 2차년도 조사와 3차년도 조사는 2년의 간격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출산경험은 낮아진 것으로 봐야함.

표 1-12 지난 조사년도 이후 출산 경험 변화 여부 변화

(단위: %)

구분	2차(2008년)	3차(2010년)
있다	4.3	4.3
없다	95.7	95.7
계	100.0	100.0

자녀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대부분 1년 이내(46.4%→17.5%→44.6%)로 보고 있으며, 자녀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대부분이 현재 자녀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47.2%→37.1%→45.4%)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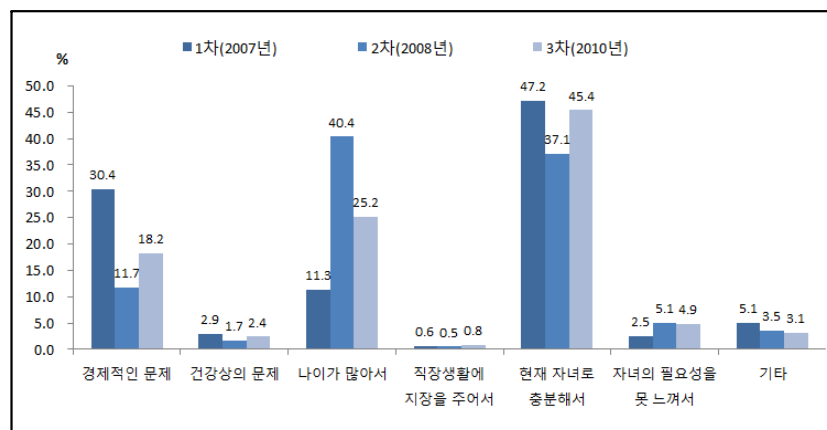


그림 1-1 | 향후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변화

## ■ 여성 일자리의 변화와 특징

### ● 현재의 경제활동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보면 1차년도 취업자가 2차와 3차년도에 모두 취업자인 경우는 4,755천명으로 1차년도 취업자의 78.0%를 차지함. 한편 1차년도 취업자 중 9.2%(561천명)는 2차년도까지 취업자였지만 3차년도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되었고, 0.4%는 실업자로 남았음.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차년도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2차와 3차년도 조사에

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비율은 71.8%로 나타남. 1차년도 비경제 활동인구 중 12.8%는 2차년도까지 비경제활동인구였지만 3차년도에 취 업자로 변경되었고, 8.4%는 2차년도 취업자로 전환되어 3차년도까지 취 업자로 남아있었음.

즉,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차년도 상태가 3차년도까지 동 일한 상태로 이어지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실업자의 경우 1차년도 실업자 중 2차와 3차년도 모두 취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 구로 변경되는 비율이 각각 31.4%, 30.4%로 높게 나타나며, 2차와 3차년 도 모두 실업자로 남아 있는 비율은 1.1%로 매우 낮음.

임금근로자를 근로형태별로 보면 1차년도는 정규직 비율이 58.7%이고 비정규직이 41.3%이었으나, 정규직 비율은 2차와 3차년도에 걸쳐 하락하 는 추이를 보임. 즉, 2차년도는 56.8%, 3차년도는 50.4%로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의 경우 1차년도에 정규직 근로자는 2차와 3차년도에도 정규직 으로 일하는 비율이 90.1%로 나타남. 1차년도 정규직에서 3차년도에 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9.8%로, 이 중 2차년도까지 정규직으로 일하 다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5.4%, 2차년도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하 게 된 비율은 4.4%로 나타남. 1차년도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근로자 87.0%는 2차와 3차년도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6.3%만이 2차년도 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3** 근로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3차(2010년)			
1차 (2007년)	2차 (2008년)	정규직		비정규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정규직	1,338	90.1	80	5.4
	비정규직	1	0.1	66	4.4

구분		3차(2010년)			
1차 (2007년)	2차 (2008년)	정규직		비정규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정규직	정규직	56	6.3	11	1.2
	비정규직	48	5.4	770	87.0

주: 비율은 1차년도 정규직/비정규직 상태를 100%로 계산한 것임. 단, 결측값은 제외함.

비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를 보면, 본인을 포함하여 평균종사자 수는 2명 전후로 나타남. 1차년도는 2.14명에서 경제위기가 있었던 2차년도 조사에서는 2.03명으로 소폭 감소하고 3차년도에는 2.20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비임금근로자는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아서, 대부분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것으로 보임. 즉,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1명 미만으로 나타남. 유급근로자의 평균 수는 1차년도 0.69명, 2차년도 0.66명, 3차년도 0.72명으로, 1차년도와 비교하여 3차년도에는 0.06명 증가에 그침.

**표 1-14 비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종사자 수의 변화**

(단위: 명)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증감		
				1차→2차	2차→3차	1차→3차
총 종사자 수 평균	2.14	2.03	2.20	-0.11	0.16	0.06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 수 평균	0.69	0.66	0.72	-0.03	0.07	0.06

무급으로 가족의 사업체를 돕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타사업체로 이직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1차년도에는 9.6%가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2차년도에는 6.5%, 3차년도에는 7.7%가 타사업체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음. 하지만 대부분의 무급가족종사자가 타사업체로의 이직을 고

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무급가족종사자 중 창업의향을 살펴보면, 1차년도는 4.6%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2차와 3차년도는 0.4%와 0.7%만이 창업의사를 가지고 있었음.

**표 1-15** 무급가족종사자의 이직의향과 창업의향 변화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타사업체로 이직할 의향	9.6	6.5	7.7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할 의향	4.6	0.4	0.7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근로시간은 1차년도 39.8시간에서 2차년도 40.9시간으로 1.1시간 증가하고 3차년도 조사에서 39.2시간으로 감소함.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슷하게 40~5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고 40시간 미만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40~50시간 미만 일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1차년도는 46.0%이고 2차와 3차년도는 이보다 높은 49.9%와 48.7%를 각각 보임. 40시간 미만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1차년도 34.7%이었으나, 경제위기 때인 2차년도에 28.0%로 크게 하락하고, 3차년도에 35.9%로 높아짐. 반면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1차년도 9.7%에서 2차년도 9.1%로 약간 하락하지만 3차년도 다시 상승하여 10.6%로 전년대비 1.5%p 상승함.

**표 1-16**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근로시간 분포의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40시간 미만	34.7	28.0	35.9
40~50시간 미만	46.0	49.9	48.7
50~60시간 미만	9.6	13.0	4.8
60시간 이상	9.7	9.1	10.6
주 평균근로시간(시간)	39.8	40.9	39.2

## ● 일 만족도

취업자의 일 만족도를 보면 3차년도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고용안정성,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발전가능성, 직장 내 인간관계, 복리후생 등 모든 측면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비해 소득수준, 직무내용, 근로환경, 직장 내 인간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지만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개인발전가능성, 복리후생은 소폭 상승했다고 응답했음. 하지만 전반적 만족도는 조사 시 마다 소폭 상승하여 1차년도 27.8%를 보였고, 경제위기인 2차년도에도 28.5%로 상승하고, 3차년도는 30.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7 일자리 만족도 변화**

(단위: %)

일자리 특성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소득수준	20.5	19.3	23.8
고용안정성	35.8	36.1	39.5
직무내용	39.2	38.0	43.5
근로환경	35.3	34.5	40.0
근로시간	34.1	35.1	40.1
개인발전가능성	27.7	28.1	30.5
직장 내 인간관계	41.1	39.3	42.1
복리후생	18.1	19.7	21.8
전반적 만족도	27.8	28.5	30.9

주: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에 응답한 비율 합.

현재 일자리와 교육수준과 적합정도를 살펴보면, 다수의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이 본인의 교육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일의 수준과 본인의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자의 비율은 1차년도 71.3%, 2차년도 79.9%, 3차년도 80.6%로 나타나며 비율 또한 점차 상승하고 있음. 반면 일의 수준이 본인의 교육수준에 비해 낮다(‘매우 낮

다’와 ‘약간 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추이를 보임.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6.1%에서 3차년도 3.7%로 하락하고 ‘일의 수준이 약간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3%에서 3차년도 14.4%로 하락함.

**표 1-18** 현재 일자리와 교육 수준과의 적합 정도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6.1	2.4	3.7
일의 수준이 약간 낮은 편이다	20.3	15.8	14.4
일의 수준이 맞는다	71.3	79.9	80.6
일의 수준이 약간 높은 편이다	2.1	1.5	1.3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	0.3	0.4	0.1

#### ● 구직자

구직자의 희망 근로형태는 2/3가량은 전일제를 1/3가량은 시간제를 선호하였음.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1차년도 61.1%에서 2차년도 61.6%로 3차년도에는 66.7%로 상승함. 반면, 시간제는 1차조사에서 38.9%로 매우 높지만, 2차년도에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다는 비율로 인해 26.3%로 하락하지만 3차년에 33.3%로 다시 상승함.

**표 1-19** 희망하는 근로 형태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전일제	61.1	61.6	66.7
시간제	38.9	26.3	33.3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다	0.0	12.1	0.0

시간제를 희망하는 구직자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자녀를 돌봐야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즉, ‘아이를 돌보기 위

해'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1차년도 45.2%, 2차년도 46.4%, 3차년도 43.8%로 나타남. 다음으로 높은 이유는 '가사일 때문'으로 1차년도 17.0%에서 3차년도 26.0%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한편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1차년도 9.4%이지만 2차년도 조사에서 대폭 상승하여 23.8%, 3차년도에서 24.6%로 상승하였음. 반면 '학업을 위하여', '여가를 즐기려고',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등의 이유로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0**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아이를 돌보기 위해	45.2	46.4	43.8
가사일 때문	17.0	20.4	26.0
학업을 위하여	7.9	3.2	0.0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6.0	0.0	1.2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4.8	0.0	0.0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9.4	23.8	24.6
여가를 즐기려고	9.7	6.2	4.5

### ● 일가정 양립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에 대한 비율은 90% 전후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로 응답했음. 즉, 이 질문에 대해 1차년도 88.5%, 2차년도 92.5%, 3차년도 92.8%가 긍정적 응답을 하며, 긍정비율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는 질문에 80% 이상이 긍정적 응답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긍정비율 또한 대체로 상승추이를 보임. 반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같이 부정적 질문에 대해 1/3가량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질문의 경우 1차년도 37.7%에서 2차년도 37.1%로 소폭 하락하지만 3차년도에서 다시 39.5% 상승함.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질문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가정생활에 주는 지장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과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1**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변화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88.5	92.5	92.8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3.3	87.7	86.0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진다	80.8	86.0	87.0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37.7	37.1	39.5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31.1	29.2	31.6

주: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합임.

역으로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에 2/3가량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질문에 대해 1차년도 응답자는 62.2%가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로 긍정적 답변을 하였으며, 2차년도와 3차년도는 이 보다 약간 상승한 64.6%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음.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 답변도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정생활이 일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은 긍정적 측면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라는 질문에 1차년도는 37.7%, 2차년도는 34.9%, 그리고 3차년도는 39.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는 질문에는 1차년도에서 37.2%가 동의했고 3차년도는 이 보다 2.8%p 높은 40.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 둘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1차년도보다 3차년도에서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나, 10% 초반대만 이를 동의하고 있었음.

**표 1-22**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62.2	64.6	64.6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71.5	78.0	78.1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37.7	34.9	39.3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37.2	35.3	40.0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 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12.8	12.2	13.4

주: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합임.

아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인식은 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으나, 찬성 혹은 반대 인식은 점차 낮아지고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비율 즉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 남편이 '매우 반대' 혹은 '대체로 반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24.0%에서 2차년도 22.6%, 3차년도 21.8%로 점차 하락하고 있고, '매우 찬성' 혹은 '대체로 찬성' 비율 또한 46.7%, 45.8%, 43.2%로 하락 추이를 보임. 반면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은 각각 28.8%, 31.6%, 35.0%로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1-23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인식**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매우 반대	5.0	5.3	3.5
대체로 반대	19.0	17.3	18.3
그저 그렇다	28.8	31.6	35.0
대체로 찬성	31.4	36.2	34.3
매우 찬성	15.3	9.6	8.9
배우자 없음	0.5	-	-
계	100.0	100.0	100.0

#### ● 모성보호제도

산전 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남편 육아휴직 등은 대표적 모성보호제도임.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인지와 활용정도를 물어보았음. 산전 후 휴가는 출산휴가 90일 중 45일 이상 보장되는 휴가로 이를 알고 있는 여성비율(‘잘 알고 있다’+‘아는 편이다’)은 2차년도 73.9%, 3차년도 77.9%로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4 산전 후 휴가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잘 알고 있다	26.3	18.7	17.4
아는 편이다	60.1	55.2	60.5
잘 모른다		23.3	19.6
전혀 모른다	13.6	2.7	2.5
합계	100.0	100.0	100.0

주: 1차년도는 ‘들어본 적도 있고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다’로 구분됨.

## ● 직장 내 성차별

직장 내 차별은 다양한 유형을 가질 수 있음. 본 조사는 차별 유형을 외모, 학벌, 출신지역, 성, 혼인상태, 연령, 고용형태로 구분하여 각종 차별 사항에 대해 경험 유무를 질문하였음. 직장 내 전반적인 성차별 정도를 질문한 결과 채용, 승진, 월급이나 수당지급, 업무배치나 분담, 교육 및 연구기회, 구조조정 등에서 20~30% 여성은 차별을 느끼고 있었음. 전반적으로 1차년도에 비해 차별 경험비율은 낮아지지만,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비율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채용의 경우 1차년도 26.4%의 여성이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며, 2차에서 19.9%로 하락하지만 3차년도에서 다시 21.9%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승진 또한 31.5%에서 22.2%로 크게 하락한 후 25.6%로 상승함. 이외 월급이나 수당지급, 업무배치나 분담, 교육 및 연수기회제공, 구조조정 등에서도 동일하게 3차년도의 조사 결과는 1차년도 보다는 낮지만 2차년도 보다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1-25 직장 내 성차별 정도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채용	26.4	19.9	21.9
승진	31.5	22.2	25.6
월급이나 수당 지급	32.8	22.2	25.8
업무 배치나 분담	34.1	26.0	28.2
교육 및 연수기회 제공	26.8	17.8	19.5
구조조정	27.8	20.7	23.1

이외 지난 조사 이후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해고 시, 업무배치, 직장 내 성 희롱에서 차별을 느끼는 비율은 높지 않고 그 비율이 또한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해고 시의 경우 1차년도에 여성은 4.5%가 차별을 경험하지만 2차, 3차년도 조사에서 각각 1.9%

와 1.4%로 하락함. 업무배치는 1차년도 6.8%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여성이 차별을 경험했지만, 3차년도에서 2.0%로 하락하며, 직장 내 성 희롱은 1차년도 4.5%에서 3차년도 1.1%로 차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1-26** 기타 차별 경험

(단위: %)

구분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해고 시	4.5	1.9	1.4
업무배치	6.8	2.7	2.0
직장 내 성 희롱	4.5	3.6	1.1

### 3 정책제언

- 여성의 가족생활 만족도 점검과 제고 방안 마련
  - 기혼여성의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2007년 77.0%에서 2010년 65.6%로 하락함.
  - 남편과의 관계 또한 남편에 대한 신뢰도를 제외하고 남편과의 대화, 부부생활, 남편과의 견해 등에 만족하는 비율이 모두 하락함.
  - 남편 가사노동 빈도는 주 1회가 가장 많으며, 남녀의 가사노동 만족도 또한 1차년도 33.3%에서 2차년도 34.0%로 큰 차이가 없음.
- 무급가족종사자 중 이직희망 여성 규모 파악 및 직업훈련 필요
  -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중 타 사업체로의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1차년도 9.6%에서 3차년도 7.7%로 나타남. 이직 의향자의 비율은 하락했으나, 우리나라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만 1,084천명(2011년)임을 감안하면 규모면으로 결코 작은 않음. 실제 주 18시간 미만 일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여성을 포함한다면 약 100천명 이상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지만, 타 사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용과 승진에서의 차별 방지 노력 강화

- 채용차별과 승진차별 경험은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채용차별 경험은 2007년도 26.4%에서 2010년 21.95로 하락하고, 승진차별 경험은 2007년도 31.5%에서 2010년도 25.6%로 하락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과 제37조(별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5%이상의 여성은 채용과 승진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4 기대효과

- 가족의 변화 파악과 치밀한 가족정책수립
- 여성정책의 핵심적 사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수립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